

# 하바드燕京學社圖書館

金 聖 河

本人이 紹介하고자 하는 이 圖書館의 正名은 Chinese-Japanese Library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of Harvard University이다. 或은 略稱하여 Harvard-Yenching Library라고도 부른다. 이 圖書館은 우리나라와도 많은 連關을 가져왔고 또한 우리나라 各團體의 後援을 얻는 本意圖를 감당하기 困難하리만큼 直接 間接으로 相互連結性을 띠우고 있으며 우리나라 文化紹介에 커다란 役割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圖書館의 紹介와 더불어 앞으로 더 많은 協力을 바라고져 몇마디 적을려고 하는바이다.

1928年 하바드 燕京學社(Harvard-Yenching Institute)의 創設과 더불어 若干의 東洋語(中國, 韓國, 日本等)로된 冊과 東洋에 關한 洋書가 하바드大學의 中央圖書館格인 와이드너(Widener) 圖書館으로부터 新設된 同學社의 圖書館으로 移置되게 되었다. 하바드燕京學社는 홀氏(Charles M. Halls)의 遺産의 一部로 組織이 된 것으로 홀氏는 어려서부터 東洋에 對한 關心이 많았다고하며 그가 不幸히도 젊어서 世上을 떠나게 됨에 遺言을 남겨 財産의 一部를 東洋을 爲해 써 달라고 附託했다는 것이다. 그의 遺志를 받들어 생긴 것이 하바드大學과 中國北京의 燕京大學을 連結하여 美國에 있어서의 東洋을 紹介하는데 도움이 될 機關을 創設한 것이 처음의

發達로 그 中の 圖書館 經營은 該學社의 重要한 機構의 하나로 지금까지 비약적인 發展을 보게된 것이다. 이 圖書館은 비록 하바드大學의 建物과 土地는 使用하고 있지만 事實上 하바드 大學과는 別個의 機關으로 理事陣容이라든가 또는 財團도 大學과는 全然 別體의 運營을 하고있는 比較의 自由로운 行動體인 것이다. 따라서 圖書와 質料의 閱覽及 提供은 하바드大學生에 局限한 것이 아니라 一般學者들에게 꼭 같은 比率로 奉仕를 하고 있는 것이다. 圖書館이 始作할 때는 學社의 名稱이 內包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自然이 中國에 置重하였기 때문에 圖書館의 名稱도 Chinese Library로 始作된 것이 第二次 大戦을 前後하여 日本研究의 緊急性을 느껴 日本書籍도 相當한 比例로 收集이 始作되어 Chinese 뒤에 Japanese라는 이름이 붙게 된 듯하다 大概 美國의 東洋學 科目을 가진 大學의 附屬 圖書館은 그 名稱이 East Asiatic Library라든가 或은 Far Eastern Library라고 부르는 理由도 여기에 起因하는 것이다. 近來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添加되었으니 東洋三國의 이름을 다 늘어 놓아야 될터이다. 여기까지 가기에는 우리나라 圖書가 아직도 微弱하기 때문에 筆者는 아직껏 여기에 對한 勇斷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圖書館은 開館當時의 責任者이든 中

國의 裘關明博士가 아직껏 館長으로 그의 半生을 이곳 發展에 獻身에 왔으며 그가 일보는 同安에 東洋 圖書館에서 널리 使用되고 있는 “漢和圖書分類”도 만들어 一般 學界에 寄與한바도 크다. 1958년에는 開館 當時부터 使用하고 있는 石造建物에서 새로 改築된 現在位置로 올라와 換氣裝備를 갖추어 一般讀者에게 便宜를 주게끔 되었다.

成員을 보면 現在 館長以下 近二十名の 職員(Full time)이 勤務하고 있으며 組織으로는 館長아래 세 副館長이 있어 各己 言語別로 統轄하고 있어 各係가 責任을 지고 冊의 選出이라든가 司書, 參考資料等 筆務를 分擔하고 있다. 東洋三國의 言語가 判異는 하나 세 나라가 漢文을 쓰고 있다는데 立脚하여 그다지 統轄에 困難은 느끼지 않으나 그러나 各部門에 들어가 各國마다 特異하게 考慮되는 點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머리 아픈일이 일어나는 것도 無理는 아니라고 하겠다. 館員의 半以上이 美國서 圖書館學校를 나온 사람들로써 다른 東洋圖書館에 比較해볼때 正規로 教育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보겠다. 近年에 와서는 日本書籍의 大幅增加로 選出과 統合을 爲해 從來 中國人の 係長을 代身해 새로 日本國會 圖書館서 係長級 한사람을 招請해와 圖書 擔當을 하게 되었다.

韓國冊은 1950年 우리나라 動亂 以後 비로소 日本書庫서 分立해나와 獨立된 部門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1952年 以後 하바드 大學內에 韓國科目을 둔後 여기에 併行하여 若干의 圖書豫算으로 近刊古來 雜誌等 손닿는대로 求해본다는것이 圖書館에 專任이 없었고 또한 換率의 差異가

代行機關의 別無로 圖書增加는 一部の 寄附을 除하고는 極히 微弱한 것이었다. 多幸이도 1957年 以後에는 相當한 豫算이 增加되었고 또한 從來의 時間으로 일올하던 우리나라 學生을 代理하여 專任責任職의 豫算이 세워져서 우리 韓國課도 本格的인 活動을 開始하게 되었다. 1960년에는 새로 한사람의 豫算이 成立되어 現在에는 韓國課內에 두사람이 일하게 되었다. 冊을 사들인다고하나 원칙 우리나라 近刊物이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選擇의 有無도 없고 쓸만하면 大概 近刊은 사들이나 그래도 한달에 二十冊이 넘지 못하는 微弱한 것이며 古書部門은 總刊이 많은 까닭으로 손에 들어오는 數가 좀 많으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躊躇하게 된다. 近來에는 日本서 우리나라 古書를 相當히 사들이고 있는 形便이다.

1958年 改修와 新設된 書庫는 各部門의 設備에도 많은 有意를 하여 대개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事務에 要하는 時間의 節約과 또는 一般使用者의 便宜를 圖謀한것 같다.

1. 司書室이 貸出及 一般閱覽室과 書庫中間에 位置하여 司書의 便利를 圖謀한다.
2. 書庫는 韓國冊의 數가 적은 關係上 한쪽 끝에 미리놓은 外에 日本 中國冊을 같은 部門에 屬하는(即歷史 또는 地理等) 冊들을 복도左右에 各各 備置하여 一般 使用에 便하게 하였다.
3. 書庫의 壁側으로는 移動式的 冊床이 設置되어 一般學者들이 마음대로 書庫內에서 冊을 使用하게 하였다.
4. 書庫의 一部에는 事務室이 設置되어 教授室로 使用되고 있는데 教授에게는 더할수 없는 便利가 있겠으나 圖書館管

理者로는 一般學生의 先生會合이 갖기 때문에 往來가 頻繁하여 靜肅이 問題가 되는 듯하다.

5. 每層에 한房式은 喫煙室과 打字室을 兼하는 房에 設置되어 研究途中의 安逸과 靜肅을 企圖한 듯하다.

本圖書館은 一種의 特殊圖書館이라 使用하는 사람들의 數가 新聞雜誌를 보러 오는 사람以外에는 大概 一定하여 學期가 始作되고 두어週日만 지나고 보면 學生及 一般使用者 얼굴이 낮아져서 大學院學生 그리고 特別히 許可받은 使用者 以外에 書庫出入을 禁한다는 標語가 大概是 無視되어 半開架式이 全開架式이 되다싶이 한다. 그러나 冊의 流失數는 極히 적은 것은 一般使用者들의 自覺이 크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圖書의 貸出은 一般讀書物은 一個月, 合計한 雜誌類는 一週日 特別한 許可 있을 때에는 一般 閱覽室에 꽂혀있는 參考圖書類도 밤새동안 빌려갈 수가 있으며 貴重 圖書室에는 筆墨이 準備되어 있어 가방 등의 휴대物을 禁하고 있다. 圖書整理는 東洋圖書整理를 爲해 裘博士가 만든 “漢和圖書分類表”를 쓴다고 한 것은 벌써 말하였으나 이 分類表는 東洋史 또는 言語 文學等에 置重하여 中國 日本의 著者 또는 年代가 特別히 細分되어 漢和書籍分類에는 極 便利하나 韓籍本에는 本是 意圖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使用이 極限될 수 밖에 없어 不便은 勿論 앞으로는 이 圖書館에서도 큰 問題거리가 되리라 하고 生覺된다.

美國內에는 既知의 協助 카다록方式 (Cooperative Cataloging System)이 있어 여기에 贊同하는 圖書館에서는 새冊이 손에 들어 올때 마다 美國國會圖書館에

報告를 하게 된다. 報告를 받은 후에는 即時로 國會圖書館에서는 自己의 藏本目錄과 또는 各圖書館에서 더러운 綜合目錄을 살펴본 후 既存의 有無를 確認한 후에 없으면 보내는 圖書館에 依託하여 “카다록”을 請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中央서는 各圖書館의 藏書를 統合할 뿐만 아니라 各圖書館에서만 完全한 “카다록”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그만큼 時間을 節約하게 되며 其後 印刷된 카드는 各圖書館에 配付되어 同一한 內容이 包含될 뿐만 아니라 個個의 圖書館에서 만드는 差異라든가 또는 “로마자表現式”의 言語斷絶 (Word division)이 統一되어 적어도 美國內에서는 한冊에 對한 均衡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冊은 現在 國會圖書館 그리고 이곳 두곳에서만 많이 購得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他處의 韓籍本이라는 것은 더 微弱한 것으로 自然이 이 圖書館에서 이 協助를 爲해 消費하는 時間이 적지는 않은 것이다. 한가지 短點은 國會圖書館의 일의 種類의 區別上 여기에 所要되는 時間이 많이 걸려 몇몇 東洋圖書館에서는 自己데로 每月 “新編目錄”을 作成하는 곳도 있으나 大概是 이러한 事業에 贊同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美國國會圖書館의 Library of Congress Card No.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納本週報가 航空便으로 부쳐와 여기에 記載되어 있는 冊은 一定한 期間內의 冊房을 통해 注文만 하면 새冊과 同時에 既存의 印刷카드가 오기 때문에 自然이 冊整理에 所要되는 時間이 節約되는 것이다. 들건데 近來 中共서도 앞으로 이러한 方式을 쓰리라 한다. 하바드大學에는 各地域別研究 (Regional studies)로 因해 많은 共產國家들의 文獻을 또한 收集하고 있는데 北韓의 出

版物도 學問의 使用價値를 莫論하고 될수 있는限 모아드리려고 努力하고 있으나, 그러나 現在까지 커다란 收集의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若干의 定期刊行物이 隔月程度로 들어오고 있는 形便이다. 이 方面에 對해서는 앞으로도 될수 있는 限 勞力을 해볼려고 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몇마디 보탬것은 只今 이곳 圖書館의 韓國課가 이만한 狀態에 應여있는것도 直接 間接으로 우리나라의 教育及文化團體들의 後援을 받았음으로 因했고 또한 그들의 協力이 없이는 이 狀態나마 앞으로 維持해 나가기 困難할것을 強調하고 싶다 大學校서 論文集을 부쳐준다거나 또는 學報等屬을 부쳐오는것이 적은 일 같기도 하지만 이곳서는 커다란 도움이되는 것이다. 제가 늘 느끼는것은 外部에서 손님이 올때마다 圖書紹介와 함께 數字를 指摘하게되어 中國의 25萬卷, 日本의 7萬5千卷, 그리고 우리것이 겨우 6千卷에 不過하다고 終言할때 느끼는 섭섭함이란 지내본

사람아니면 形容하기 困難한것이다. 우리나라 圖書의 數가 적다고 質的으로 나은 것이 있느냐 하면은 그런것도 아니다.

그러나 只今같이서는 우선 質도 質이 거니와 量도 問題가 되어있다 나는 차라리 數가 많은 가운데서 좋은것 몇권이 있다는 數字가 나와 줄것을 바라는 바이다. 한가지 더 添附해서 말하고 싶은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新刊書目” 또는 營業者의 綜合目錄等 그 數가 極히 드물어 저같이 他國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打擊인 問題가 되는것이다. 目錄이 있으면 다른 廣告欄에 時間을 浪費하지 않고 그것만 依持해서 冊을 注文하면 되는것이고 이곳에서는 多幸이도 新聞도보고 다른 雜誌도 사드리니 이것저것 들추면 무엇이 發刊되는지 알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곳에서는 참말로 圖書選出이 漠然할것이다. 앞으로 圖書館協會의 할일도 많겠지만 이리 한테 着眼하는것이 펍으나 一般 關係者들에게 有用하게 使用되지 않을까 한다.

## 各圖書館製本專問

高級  
古冊  
雜誌  
洋書  
新聞

# 文化製本所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三街一四八

電話 ③ 8 7 9 3 番